

목차

chapter 1 희망과 실제 1

유로의 역동성 3 | 유로와 평화 10 | 유로의 무역 및 자본이동에서의 장점 18 |
통화동맹에 이르는 길 22 | 독일 재통일의 대가? 25 | 이전지출 및 채무동맹 27 |
유럽중앙은행 29

chapter 2 주변국의 거품 35

자본수입 37 | 금리 스프레드의 실종 40 | 시기의 문제 48 | 정부예산 구제 50 |
재정규제 결여 54 | 이탈리아의 실기(失機) 61 | 외채 문제 64 | 거품 72 |
부동산 가격 75 | 민간자산 78 | 시장실패인가 정부실패인가? 81

chapter 3 동전의 이면 89

유로 도입의 승자와 패자 91 | 유럽 중심국의 주변국으로의 자본수출 97 | 독일의
대량실업 106 | 어젠다 2010 108 | 새로운 건설 붐 110 | 탱고 춤에 대한 오해 111

chapter 4 경쟁력 문제 119

경상수지가 개선된 이유 121 | 죽어가는 기업 127 | 너무 비싼 가격 129 | 실질적인 평가절하의 필요성 135 | 미미한 진전 142 | 아일랜드의 사례 148 | 발틱 국가 – 긴축의 효과 152 | 진정한 경쟁자 156 | 유로의 함정 – 디스플레이션의 위협 158

chapter 5 백기사(白騎士) 167

붕괴 169 | 발권기관의 도움 175 | 담보기준 완화와 만기 연장 183 | 도덕적 해이 194 | 긴급유동성지원(ELA) 신용 199

chapter 6 유럽의 국제수지 위기 207

타겟 잔액 209 | 타겟 잔액의 팽창 217 | 타겟 잔액은 왜 신용의 척도인가? 223 | 공적자본 수출로서의 타겟 잔액 227 | 내부통화와 외부통화 그리고 지역 운전기 230 | 북유럽 국가의 중앙은행 대출 구축 234

chapter 7 경상수지, 자본유출, 타겟 수지 243

국제수지 적자의 보전 245 | 화폐 운전기로 연명하는 그리스, 포르투갈, 사이프러스 258 | 아일랜드의 자본도피 262 |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자본도피 264 | 중간에 낀 프랑스 269 | 독일의 타겟 청구권 수출 272 | 핀란드와 네덜란드 279 | 브레턴우즈 체제와 유럽결제동맹 280 | 트랜스퍼 루블 284 | 스위스의 사례 285 | 미국의 유사 타겟 잔액 결제방식 286 | 구제정책의 기본적 이분성 294

chapter 8 비틀거리며 걷기 301

위기의 6단계 303 | 국채 매입 - 국채매입계획(SMP) 309 | 납세자에게는 위험이 없다? 313 | 유럽안정화기구(ESM) 315 | 구제기금 개요 318 | 채무 위험 323 | 무제한국채매입 논쟁 331 |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343 | 은행동맹 - 채무조정 또는 구제금융 347 | 계획 356 | 유럽중앙은행 구제 361 |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약화 365

chapter 9 유로시스템의 재고 377

경로 변경 379 | 미국의 교훈 381 | 경성 예산제약 384 | 중립 통화 388 | 건디기 어려운 채무 393 | 채무조정 400 | 살아 숨 쉬는 통화동맹 - 브레턴우즈와 달러 사이 407 | 통합으로 가는 길 420 |

주석 429

색인 485